

高句麗의 鮮卑族戰爭과 騎兵戰術*

— 특히 前燕·後燕·隋戰爭을 중심으로 —

李 弘 斗**

머리말

I. 高句麗의 前燕戰爭과 騎兵戰術

II. 高句麗의 後燕戰爭과 騎兵戰術

III. 高句麗의 隋戰爭과 騎兵戰術

맺음말

머리말

기원전 37년 압록강유역에서 성읍국가로 출발한 고구려는 220년 중국의 한왕조가 멸망하자, 적극적으로 대륙진출을 시도하였다. 고구려의 대륙진출은 위나라 관구검의 침략을 받고, 한때 주춤하였지만, 쥘의 세력이 약화된 사이에 요동의 서안평(311), 낙랑군(313), 대방군(314)을 차례로 점령하여 고조선의 옛땅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319년 모용외가 쥘의 平州刺史와 宇文氏를 격파하고,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342년(고국원왕 12) 고구려는 전연왕 모용황의 침략으로 수도가 함락되었지만, 이후 국난극복을 위해 국가체제를 정비한 결과 광개토왕 때에는 영토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다. 한편 중국은 311년 흉노가 서진을 멸망시키면서 5호16국시대가 열리고, 439년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5호16국을 통일함으로써 북쪽의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2-075-A00008).

** 홍익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이민족왕조와 남쪽의 한왕조가 대립하는 남북조시대가 열렸다. 이후 선비족은 우월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신흥세력으로 성장했으며, 이들이 후에 隋 왕조 통일을 주도하였다.

중국의 지배세력이 한족에서 유목민족으로 교체됨에 따라 기병전술도 말이 끄는 車騎에서 사람이 타는 騎兵으로 바뀌었다. 동북아시아의 기병전술은 각 민족의 지형과 군사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중국의 한족은 마차를 이용해 평야에서 車戰을 펼쳤다면, 선비족은 유목생활 자체가 군사훈련이었기 때문에 기병이 주력군이었다. 반면에 고구려는 일찍부터 果下馬와 貊弓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기병대를 편성하여 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守城戰을 펼쳤다. 그런데 고구려의 기병전술은 중국의 왕조교체와 고구려의 징병체계, 보병과의 협력체계, 陣法 등과 밀접한 관련하에서 발전했다고 하겠다.

그동안 고구려와 중국전쟁³⁾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지만,

1) 기원전 2천년경 殷나라에서는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창을 휘둘러 적을 죽이는 車戰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車戰은 周나라 戎車로 계승되었으며, 춘추전국시대와 한제국 때까지 사용되었다. 삼국시대에 이르러 북방 유목민족의 영향으로 사람이 말등에 타는 승마법이 처음 보급되었다.

2) 유목민족은 기원전 1천년부터 말을 타고 고삐로 자유롭게 부림으로써 산에서도 작전이 가능했으며, 기동력 또한 車戰을 압도하여 전술상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특히 스키타이는 기원전 8세기이래 청동제갈과 고삐 등의 馬具, 기마전에 적합한 弓矢·彎弓·短劍·輕鎗 등의 무기류를 발명하였고, 흉노족은 鎧子를 발명했으며, 스키타이계의 사마르트는 등자에 말을 넣고, 이를 기마전에 이용함으로써 기마전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또한 서기 2세기 중반 경 안식국은 馬蹄를 처음 발견했는데, 그들은 騎射 전법과 활을 막는 방패를 만들고, 大刀·長槍·馬甲을 이용한 重裝騎兵 전투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스키타이계의 각종 무기와 마구, 기마 전술이 기원전 5~4세기에 몽골유민에게 전래됨으로써 유목민족의 기병전술이 한층 강화되었다(남도영, 1996 『韓國馬政史』, 21-22쪽).

3) 李龍範, 1969 「高句麗의 遼西進出 企圖와 突厥」, 『史學研究』 제4호; 李萬烈, 1978 「高句麗와 隋·唐과의 戰爭」,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申采浩 著, 李萬烈 註釋, 1983 『朝鮮上古史』 丹齊申采浩先生紀念事業會; 盧重國, 1985 「高句麗 對外關係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東方學志』 49; 朴京哲, 1989 「高句麗 軍事戰略 考察을 위한 一試論」, 『史學研究』 제40호; 서인한, 1991 『高句麗 對隋·唐戰爭史』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윤명철, 1994 「高句麗 末期의 海洋活動과 동아시아중해의 질서재편 - 高句麗전쟁을 중심으로 -」, 『國史館論叢』 제52집; 余昊奎, 1998 「高句麗 初期의 兵力動員體系」, 『軍史』 제36호; 余昊奎, 2000 「高句麗 千里長城의 經路와 築城

양국의 기병전술에 대한 연구는 아직 소략한 편이다⁴⁾ 따라서 본고에서는 요동패권을 놓고 고구려와 선비족간에 전개되는 정복전쟁을 통해 고구려 기병전술의 독자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먼저 고구려의 전연전쟁과 기병전술에 대해 고찰하고 다음으로 고구려의 후연전쟁과 기병전술을 이해하며, 마지막으로 고구려의 수전쟁과 기병전술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여기서 검토할 내용은 근자에 중국이 고구려사를 탈취할 목적으로 진행중인 東北工程의 오류를 해명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I. 高句麗의 前燕戰爭과 騎兵戰術

246년(동천왕 20) 고구려는 관구검의 침략을 받아 환도성(통구)과 수도 국내성이 참혹하게 파괴되었다. 247년 고구려는 평양성을 쌓고 종묘사직을 이전했지만⁵⁾ 3세기말부터는 북방유목민족인 鮮卑族⁶⁾의 침략을 받았다. 선비족은 2세기말부터 3세기초까지 요동과 요서지방에서 慕容氏, 宇

背景」『國史館論叢』 제91집.

4) 고구려와 중국 한나라의 기병전술은 다음 논고를 참조할 것. 李弘斗, 2004 「高句麗의 對外戰爭과 騎兵戰術－특히 漢族과의 전쟁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제68호.

5)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 5, 東川王 21년 2월.

6) 鮮卑族은 BC. 206년 東胡가 匈奴冒頓單于에게 패한 후 東胡에서 갈라진 烏丸族과 鮮卑族 중의 한 분파다. 鮮卑는 烏丸보다 그 위치가 북방에 있어서 후한과의 통교는 서기 40년(建武 25)에 처음 시작되었다. 선비족은 鮮卑大君長 檀石槐에 이르러 흉노의 옛 땅을 모두 차지했으며, 166년(延熹 9)에는 후한이 檀石槐을 왕으로 봉했지만, 이를 거절할 정도로 세력이 크게 성장했다. 이때부터 그들의 대외침공이 본격화되었다. 흉노족은 단석괴 이후부터 흉노의 제도를 모방하여 그들의 광대한 영역을 3部로 나누어 분할하여 통치했다. 이 3부의 대인 중에서 推演·慕容·槐頭 등은 大人世襲制에 따라 씨족분열을 보게 되어 拓拔氏, 慕容氏, 檀石槐로 하는 계파를 형성해 갔다(池培善, 1977 「鮮卑族의 初期段階 氏族分裂에 대하여」 『白山學報』 제23호, 101쪽).

文氏, 段氏 등 여러 집단을 이루고 살았다. 이 가운데 고구려와 국경을 접했던 부족은 모용씨이다. 이들이 고구려 침공에 처음 참여한 것은 238년이었다.⁷⁾ 당시 중국은 司馬炎이 265년 西晉을 세우고, 316년까지 통치했다. 그런데 4세기초 8왕의 난으로 서진의 국력이 약화된 사이 북방 이민족이 남하하여 5호16국시대가 열렸다. 따라서 고구려는 대륙의 정세변동에 편승하여 적극적으로 요동진출을 모색하였다.⁸⁾ 그러나 3세기말 모용외가 서진과 우호관계를 맺고 고구려를 여러 차례 침공했으며,⁹⁾ 319년(미천왕 20)에는 우문씨와 단씨를 제압한 결과 고구려의 요동진출은 기세가 꺾였다. 특히 모용황은 334년 연왕을 자칭하고, 339년 신성(무순)부근까지 진출함으로써¹⁰⁾ 고구려는 370년까지 전연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었다.¹¹⁾ 전연은 북방유목민족이 세운 최초의 胡族정권인데, 그들의 지배체제의 핵심은 강력한 기병조직에서 나왔다.

고구려가 상대한 중국왕조를 기병전술의 차이에 따라 분류하면, 후한 왕조, 위진남북조, 수당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후한대에는 말안장과 躡子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으므로 기병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단, 보병과의 협동작전에서는 기여한 측면이 크다고 하겠다.¹²⁾ 胡漢

7) 慕容氏의 초대 추장 莫禮跋은 고구려를 직접 침략하지는 않았으나, 238년 魏軍과 함께 요동군 公孫예력을 침략할 때 참여했으며, 그 아들 木延은 265년 위나라 관구검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 선비족부대를 이끌고 전쟁에 직접 참여하였다.
 8) 당시 고구려는 302년(미천왕 3)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현도군을 침입하여 8천 명을 포로로 잡았고, 311년(미천왕 12)에는 요동의 서안평현을 점령하였으며, 313년(미천왕 14)에는 나랑군을 쳐서 2천 명을 포로로 잡았다. 314년에는 대방군을 침략하였다(『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 5, 美川王 3-15년).
 9) 慕容廆는 五胡 중 하나인 鮮卑族에 속했는데, 그는 大棘城지금의 錦州省 錦縣에 살면서 鮮卑大都督, 또는 鮮卑大單于라 칭하였다. 모용외는 265년에 부여를 침공하였고, 288년(봉상왕 2)에는 고구려의 서북방을 침입하였다. 그러나 이때 고구려 고노자가 5백의 기병으로 모용외를 물리쳤다. 그 후 모용외는 296년(봉상왕 9)에 재침하여 서천왕의 능묘를 파려다가 고구려군의 추격으로 물러갔다.
 10) 손영중, 앞의 책, 124쪽.
 11)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1991 『조선전사』(고구려편), 68쪽.
 12) 白奇寅, 1998 『中國軍事制度史』 국방군사연구소, 69쪽.

體制의 위진남북조시대는 16국의 유목민족이 고유의 기병조직을 유지함으로써 기병의 전투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통일왕조인 수나라는 경기병의 숫자를 증대하고, 陣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고 하였다.¹³⁾ 한편 고구려는 후한과 曹魏軍의 속전속결의 수성전으로 대응했는데, 고구려의 수성전법은 '先守後戰'하는 것으로서 먼저 방어에 치중하지만 적군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즉시 기병으로 공격하는 전술이었다.¹⁴⁾ 따라서 여기서는 고구려와 선비족의 모용씨가 세운 전연(349~370)과의 전쟁을 통해 고구려의 기병전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용황은 서쪽의 우문선비와 서남쪽의 後趙(319~350)¹⁵⁾를 치기 전에 후방의 근심을 제거하려고 342년에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다음 사료를 통해 당시 고구려와 선비족 전연의 전술을 엿볼 수 있다.

12년(342) 10월에 연왕 모용황은 수도를 棘城에서 龍城으로 옮겼는데, 입위장군 모용한이 모용황에게 권하기를, 먼저 고구려를 취하고 다음에 우문씨를 없애야만 중원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고구려에는 남북의 두 길 있는데, 그 북쪽 길은 평활하고 남쪽 길은 험하고 좁아서 軍衆은 북쪽 길로 가기를 좋아하였다. 모용한이 말하기를, "고구려에서는 대군이 북쪽 길로 오리라고 하여 북쪽을 중히 여기고, 남쪽을 소홀하게 여길 것이니, 이때 精兵을 거느리고 남쪽 길로 진격하여 불의에 나기면 환도성은 취할 것도 못된다. 따로 한 소대를 보내어 북쪽 길로 나아가면 설령 실수가 있더라도 그의 중심은 무너지게 되므로 부분은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모용황은 그 말에 따랐다. 11월에 모용황이 친히 정병 4만

13) 白奇寅, 1996 『中國軍事思想史』 국방군사연구소, 83쪽.

14) 李弘斗, 2004 앞의 논문.

15) 흉노 출신의 劉淵은 304년에 쩌나라 황제로부터 五部單于로 책봉되었고, 308년에는 한나라 후예라는 명분으로 황제를 칭했는데, 이 흉노의 수령이 세운 나라가 곧, 前趙이다. 북중국을 통일한 유연의 계승자인 劉聰(310-318)이 318년 사망하자, 그의 부관이었던 石勒은 329년 유홍의 전조를 폐하고, 새로운 흉노왕조 後趙를 세웠다. 후조는 대략 330년경부터 350년까지 20년간 지속되었다(르네 그루세 지음,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옮김,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1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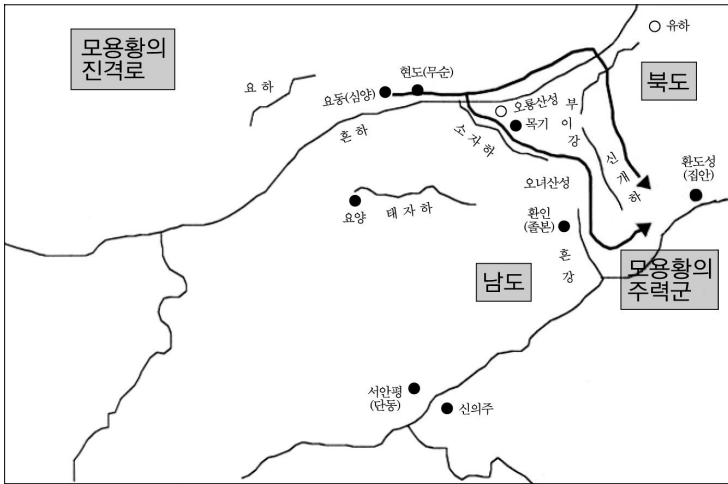
을 거느리고 남쪽 길로 나아갈 때 모용한·모용패로 선봉을 삼고 따로 장사 왕우 등으로 하여금 군사 1만 5천을 거느리고 북쪽 길로 나가게 하여 고구려를 침범해 왔다. 고국원왕은 아우 武를 시켜 精兵 5만 명으로 북쪽 길을 막게 하고 왕 자신은 弱卒을 거느리고 남쪽 길을 방어하였다. 모용한 등이 먼저 남쪽 길로 와서 싸움을 하고 모용황이 대군으로 뒤를 이으니, 고구려 군사가 크게 패하였다. 좌장사 한수가 고구려 장군 이불화도기를 베고 여러 군사의 승세를 타서 마침내 환도성에 입성하였다.

왕은 홀로 말을 타고 달아나 단웅곡에 들어갔으나, 연나라 장수 모여나가 왕모주씨와 왕비를 사로잡아갔다. 그때 마침 연나라 장수 왕우 등이 북쪽 길에서 싸우다 모두 패하여 죽었으므로 모용황은 다시 추격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내어 왕을 불렀으나, 왕은 단웅곡에서 나오지 않았다. 모용황이 환국하려 할 때 한수가 말하기를, “고구려 땅은 험하여 지키기 어렵고 지금 국주는 도망하고 백성은 흩어져 산곡간에 숨어있는데 大軍이 떠나면 반드시 다시 모여 남은 군중을 수습할 것이므로 오히려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후략)” 하였다.¹⁶⁾

위 사료는 연왕 모용황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 험한 남쪽 길¹⁷⁾에는 정예군 4만 명을 보내고, 평탄한 북쪽 길에는 1만 5천 명을 보낸 반면, 고구

16)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6, 故國原王 12년 2월 “十二年, 冬十月, 燕王皝遷都龍城 立威將軍韓壽 先取高句麗 後滅宇文 然後中原可圖 高句麗有二道 其北道平闊 南道險狹 衆欲從北道 韓曰 “虜以常情料之 必謂大軍從北道 當重北而輕南 王宜帥銳兵 從南道擊之 出其不意 北都丸都不足取也 別遣偏師 出北道 縱有蹉跌 其腹心已潰 四支無能爲也.” 皝從之 十一月, 皝自將勁兵四萬 出南道 以慕容翰·慕容霸爲前鋒 別遣長史王寓等 將兵萬五千 出北道以來侵王遣弟武 帥精兵五萬 拒北道 自帥羸兵 以備南道 慕容翰等先至戰 皝以大衆繼之 我兵大敗 左長史韓壽 斬我將阿佛和度加 諸軍乘勝 遂入丸都 王單騎走入斷熊谷 將軍慕輿泥 追獲王母周氏及王妃而歸 會 王寓等戰於北道 皆敗沒 由是 皝不復窮追 遣使招王 王不出 皝將還 韓壽曰 “高句麗之地 不可戍守 今 其主亡民散 潛伏山谷 大軍既去 必復鳩聚 收其餘燼 猶足爲患(後略)”.

17) 전연이 고구려 국내성을 공격할 때 두 길이 있었다. 그 경로는 학자들 간에 서로 견해가 다르지만, 남쪽 길은 渾河·蘇子河 합류점→渾河→蘇子河→富爾江→渾江→新開河→國內城이고, 북쪽 길은 渾河·蘇子河 합류점→渾河上류→柳河→輝發河→渾江→葦沙河(清河)→國內城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修達 1983-3 「關於高句麗 南北交通路」 『博物館研究』 34-38쪽 ; 孔錫龜, 1998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36쪽에서 재인용함).



려 고국원왕은 북쪽 길에는 5만 명을 배치하고, 남쪽 길에는 약졸 1만여 명을 배치했다는 내용이다. 위의 그림과 같이 모용황이 주력군을 남쪽 길에 배치한 것은 고구려의 부대배치를 간파한 치밀한 작전에 의한 것이었다. 고구려가 북쪽 길의 적군 1만 5천 명을 전멸시켰지만, 남쪽 길에서는 패배하여 환도성이 함락된 사실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당시 전연이 고구려에 승리한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하나는 전연군의 파격적 전략전술이고, 다른 하나는 유목민족의 후예로서 기마전술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전연군의 전술적 승리는 고구려가 주력군 5만을 평탄한 북쪽 길에 투입하여 전연군을 궤멸시켰던 반면, 약졸을 배치한 남쪽 길에서는 크게 패배한 것에서 알 수 있다.¹⁸⁾

18) 전연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남쪽 길과 북쪽 길을 이용했는데, 양국이 충돌한 남쪽 길의 木底城을 興京老城과 無陞을 연결하는 지점인 木奇 일대로 비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今西春秋, 1995 「高句麗의 南北道와 南蘇·木底」 『靑丘學叢』 22). 木奇 주변에는 五龍山城, 櫃子石山城, 木奇 동남의 평지성, 河西村의 평지성 등 고구려성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목저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연군이 고구려를 공격하기 이전에 고구려의 지형을 이미 파악했음을 반영하고 있다. 위 사료에서는 공격과 방어 루트 및 두 길에 배치한 군사 숫자만을 언급했기 때문에 양국의 구체적인 기병전술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다음 몇 가지 사실을 통해 당시의 기병전술을 재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전연의 주력군이 기병이라는 사실은 앞에서 언급했다. 따라서 그들은 빠른 기동력으로 속전속결 전술을 구사했는데, 이때 선봉대가 전술의 핵심이었다. 당시 모용한과 모용패는 선봉대를 이끌고 목저성에 도착하여 그곳의 지형과 고구려군의 정세를 탐지한 다음, 고국원왕이 지휘하는 고구려군대와 조우했다. 고구려군은 각 성과 연대하여 전연군의 선봉대에 완강히 저항했다.

그러나 전연군은 성을 고립시키는 전술에 능숙했다. 양국의 군사가 충돌한 남쪽 길의 목저성 주변에는 五龍山城, 櫃子石山城, 木奇 동남의 평지성, 河西村 평지성 등이 분포해 있었지만,¹⁹⁾ 모용회의 선봉군은 이곳의 산성과 평지성을 모두 탈취하여 목저성을 함락시키고, 주변의 교통망을 장악하여 공격의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이때 모용황이 거느린 4만의 본대가 도착함으로써 전세가 급격히 역전되어 고구려군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당시 전투시기가 11월이었던 것도 고구려에게 불리했다. 남쪽 길 목저성 일대는 산림과 경사지, 개천, 하천 등이 많아 기병전술을 펼치기에 부적당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동절기로써 모든 하천이 결빙되었기 때문에 전연군은 기병의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 고구려 여러 성을 탈취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고구려의 기병전술은 어떠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고구려의 병력 배분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견해가 있다²⁰⁾ 그러나 고국원왕이

19) 孔錫龜, 1998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37쪽.

20) 임용한, 앞의 책, 72쪽.

남쪽 전선에 소수의 병력을 투입했던 것은 전쟁을 안이하게 생각해서가 아니고, 전투에서 지형적 조건을 십분 활용한 전술이었다. 그런데도 고구려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연군의 기병이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선비족은 중국화를 추진 중에 있었으므로 물자나 장비, 병력동원 능력과 통제력, 조직 등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력이 열세한 고구려가 정예병을 최대한 북쪽으로 몰아주어 적의 주력군을 강타하면, 남쪽에서는 험한 지형을 이용하여 적을 격퇴하는 작전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²¹⁾ 그러므로 당시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하자가 없는 전술이었다.

한편 통신연락체계를 세우지 못하고, 예비 병력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구려가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견해가 있다.²²⁾ 그러나 전술적 측면에서 검토한다면, 이러한 견해는 재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당시 고구려의 전술과 병력 배치는 기본에 충실했던 반면, 전연은 전투준비, 부대편성, 포위작전, 공격전술 등이 너무 모험적이고 파격적이었다. 당시 연나라는 이전의 유목민 수준을 벗어난 상태에 있었다. 그것은 유목민족의 기마전술이 한족의 車戰을 전투에 수용했음을 뜻한다. 따라서 남쪽 길 전투에서 고구려는 험한 지형 조건에 의지하여 주로 보병을 전선에 배치했던 반면, 전연은 정면에서 공격하는 듯하면서 일부의 騎兵과 車騎를 고구려군 후방으로 돌려 공격하였다.

당시 전연이 구사한 전술의 핵심은 고구려의 배후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중원진출의 배후를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고구려와 우문씨를 공격한 것이나, 패전한 고국원왕이 국내성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단웅곡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연나라가 배후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남쪽 길에서 승리한 연나라 기병은 패주하는 고구려군사를 추격하여 거의 전멸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국측 기록에는 고국원왕이 말 한 필을 타고 겨우

21) 임용한, 앞의 책, 67쪽.

22)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1991 앞의 책, 70쪽.

도망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북쪽 길로 침략한 왕우의 부대가 고구려 정예병에게 패함으로써 모용황도 본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II. 高句麗의 後燕戰爭과 騎兵戰術

351년 저족계의 符建은 장안에서 大秦을 세우고, 황제를 칭했으며, 아들 符堅은 더욱 강해져서 양자강이북의 북중국을 놓고 전연과 양분하는 형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前秦王 부견이 333년 동진에게 패배하면서 북중국의 형세는 다시 급변하였다. 일찍이 부견에게 귀속했던 모용수(전연왕 모용황의 제 5재)가 부견을 이탈하여 385년 중산에서 후연을 건국하였다. 따라서 북중국은 점차 후연의 세력권으로 편입되어 갔고, 요동지방도 모용씨에게로 귀속되었다.²³⁾

한편 342년 전연의 모용황이 고구려 환도성을 폐허로 만들었던 사실은 그들의 주력군이 기병이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선비족의 한 분파였던 전연군은 자신들의 장기인 기마전술에 한족의 車騎와 무기사용을 습득함으로써 전투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구려와 후연간의 전쟁을 통해 고구려의 기병전술을 살펴보려고 한다.

고구려는 전진과 후연간의 왕조교체를 이용하여 환도성이 함락된 이후 40여 년만에 요동진출을 재개하였다. 다음의 사료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2년 6월에 왕은 4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요동을 습격하였다. 이에 앞서 연왕 모

23) 孔錫龜, 1998 앞의 책, 40-43쪽.

용수가 대방왕 모용좌를 시켜 용성(지금의 금주성 조양)에 군대를 주둔케 했는데, 모용좌는 고구려가 요동을 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 학경에게 군사를 이끌고 요동을 구원토록 하였다. 고구려 군사가 이를 격파하여 마침내 요동과 현도를 함락하고, 남녀 1만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11월에 연나라 장수 모용농(모용수의 동생)이 군사를 이끌고 침범하여 요동·현도 2군을 회복하였다.²⁴⁾

위 사료는 고구려와 후연의 전쟁에서 고구려가 승리하여 요동과 현도를 함락했는데, 후연이 곧 2군을 회복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고구려가 후연에게 승리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나는 소수림왕이 내정을 정비하여 국력을 크게 신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후연이 내부반란으로 요동지역을 장악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후연은 요동을 점령한 5개월여 만에 요동·현도 2군을 회복하고, 그 곳을 후연의 행정구역에 편입함으로써 요동의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이처럼 후연이 요동을 직접 지배하자, 고구려의 대륙진출기세는 꺾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366년(고국양왕 3) 선비족의 拓跋氏가 魏王을 자칭하고 후연을 압박하자, 후연은 366년 탁발씨에게 패하여 수도를 中山에서 龍城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모용성이 하북의 지배권을 상실함으로써, 영도가 요서·요동지역으로 축소된 저간의 실정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모용성은 서방으로의 진출을 포기하고, 동방진출을 적극 시도한 바 고구려를 침공할 수밖에 없었다.²⁵⁾ 다음 『삼국사기』의 사료를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다.

① 광개토왕 9년 2월에 연왕 모용성이 고구려왕의 병레가 거만함을 이유로 군사

24)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 6, 故國壤王 2년(385) “二年, 夏六月, 王出兵四萬, 襲遼東. 先是, 燕王垂命帶方王佐, 鎮龍城. 佐聞我軍襲遼東, 遣司馬郝景, 將兵救之, 我軍擊收之, 遂陷遼東·玄菟, 虜男女一萬口而還. 冬十一月, 燕慕容農將兵來侵, 復遼東·玄菟二郡.”
 25) 孔錫龜, 1998 앞의 책, 46쪽.

3만 명을 직접 이끌고 습격했는데, 표기대장군 모용희로 선봉을 삼아 신성과 남소성을 함락하여 7백여 리의 땅을 개척하고, 그 곳의 5천여 호를 옮겨놓고 돌아갔다.²⁶⁾

- ② 광개토왕 11년에 왕이 군사를 보내어 후연의 숙군성(용성의 동북)을 치니, 후연의 평주자사 모용귀가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²⁷⁾
- ③ 광개토왕 14년 1월에 후연왕 모용희가 고구려 요동성을 공격했는데, 성이 장차 함락되려 하자, 모용희가 將士에게 명하기를, “성에 오르지 마라. 그 성을討平한 후에 내가 황후와 함께 가마를 타고 입성하겠다” 하였다. 이로 인하여城中에서 방비를 엄히 하였으므로 후연왕은 마침내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²⁸⁾
- ④ 광개토왕 15년 12월에 후연왕 모용희가 거란을 습격하여 형복에 이르렀다. 그런데 거란의 군사가 많은 것에 놀라 돌아가려고 하였다. 마침내 輜重兵을 버리고 輕騎兵으로 고구려를 습격하였다. 후연군은 전후 3천여 리를 행군하여 병사와 말이 피곤하고 추위에 얼어 죽는 자가 많았으며, 고구려 木底城(지금 요녕성의 木岫)을 치다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²⁹⁾

위 사료 ①은 후연왕 모용성이 광개토왕의 무례함을 이유로 399년(광개토왕 9) 고구려를 공격하여 신성과 남소성을 함락시켰다는 것이고, ②는 광개토왕이 401년 숙군성을 공격하여 후연을 보복했으며, ③은 모용희가 404년(광개토왕 14) 고구려 요동성을, ④는 405년 12월 후연이 거란의 습격을 포기하고, 고구려 木底城을 공격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내용이다.

사료를 종합할 때 후연과 고구려 양국은 모두 주력군을 기병으로 편제

26)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 6, 廣開土王 9年 “九年二月, 燕王盛, 以我王禮慢, 自將兵三萬襲之. 以驃騎大將軍慕容熙, 爲前鋒, 拔新城・南蘇二城, 拓地七百餘里, 徙五千餘戶而還”.

27)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 6, 廣開土王 11年 “十一年, 王遣兵攻宿軍, 燕平州刺史慕容歸, 棄城走”.

28)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 6, 廣開土王 14年 “十四年, 春正月, 燕王熙來攻遼東城. 且陷, 熙命將士: 毋得先登, 俟平其城, 朕與皇后, 乘輜而入, 由是, 城中得嚴備, 卒不克而還”.

29)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 6, 廣開土王 16年 “十五年, 冬十二月, 燕王熙襲契丹, 至陁北, 畏契丹之衆, 欲還. 遂棄輜重, 輕兵襲我. 燕軍行三千餘里, 士馬疲凍, 死者屬路. 攻我木底城, 不克而還”.

했지만 후연군은 속전속결의 단기전이었던 반면, 고구려는 수성전으로 공격과 방어를 상황에 따라 조정했다고 하겠다. 위 사료 가운데 후연이 “7백 리의 땅을 빼앗았다”고 한 것과 “3천여 리를 행군했다”는 사실은 후연의 공격 범위가 넓었음을 뜻하는데, 이러한 전술은 주력군이 기병일 때만이 가능하였다. 한편 고구려의 守城戰은 “先守後戰”을 뜻하는데, 이것은 적군의 사기가 상승세인 초기전투에서는 방어에 치중하지만 적군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즉시 성문을 열고 공격하는 전법이다. 고구려는 수성전을 이용하여 후연과 전투에서 네 번을 전투한 결과 세 번을 승리할 수 있었다.

고구려가 399년 후연에게 참패한 것은 다음 세 가지 문제와 관련이 있다. 먼저 후연이 선봉대³⁰⁾로 고구려를 기습한 것이고, 다음은 후연이 車騎와 騎兵을 함께 보유함으로써 기동력과 충격력을 동시에 갖추었으며, 마지막으로 오늘날 무순지역에 해당하는 신성은 후연이 車·騎의 합동작전을 펼치기에 용이한 개활지였다는 사실이다. 특히 후연군의 기동력이 우수했던 것은 표기대장군 모용희가 직접 선봉대를 이끌었던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는 401년, 404년, 405년 등 후연과의 세 차례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였다. 승리의 원동력은 건국 이후 지속적인 군사력 증진과 전략전술의 계발에 따른 전국토의 요새화에서 찾을 수 있다³¹⁾ 다시 말해서 고구려는 고조선의 井田制를 통해 기병을 양성하고, 군사를 훈련했으며, 4세기 중반부터는 종전의 특권적 전사단 대신 公民을 군사로 징병함으로써³²⁾ 병사의 숫자를 크게 확대하였다. 특히 전국의 5개 강을 중심으로 요

30) 선봉대는 본대 앞에서 선봉 역할을 담당하는 부대인데, 인원은 본대의 10분의 1로 구성되었으며, 이동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적의 기습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행군하다가 적을 만나면 선봉대가 직접 공격하며, 초토화 작전을 수행하여 본대가 속전속결전투를 하는데 기초를 닦았다.

31) 朴京哲, 1989 앞의 논문, 4쪽.

새화했는데, ① 압록강 요새, ② 두만강 요새, ③ 대동강 요새, ④ 요하 요새, ⑤ 송화강 요새³³⁾가 그것이다. 광개토왕은 攻守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전국토의 요새화를 통해 영토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다.

특히 405년 12월 후연의 모용희는 거란을 공격하다가 기수를 돌려 3천리를 행군해 고구려 목저성을 공격했지만 크게 패배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목저성의 지형은 평탄했는데, 이러한 입지 조건은 양국의 전투에 어떻게 작용했을까? 그것은 평평한 지형이면 車騎를 쓰고, 험한 산악 지형이면 騎兵을 투입하며, 좁고 막힌 지형에서는 弩兵(弓兵)을 쓴다³⁴⁾는 관점에서 볼 때 목저성 전투는 車騎나 重裝騎兵을 소유한 쪽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후연이 경기병뿐이었던 반면, 고구려는 중기병과 경기병의 상호 협력체제에 기초한 전술을 운용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고구려 승리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하겠다.

III. 高句麗의 隋戰爭과 騎兵戰術

589년(평원왕 31) 隋나라가 남조의 陳을 멸망시킴으로써³⁵⁾ 위진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강력한 제국이 지배하는 통일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수나라는 간접적인 책봉조공체제보다 직접적인 군현체제로써 중국의 주변 지역을 지배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수나라는 대규모의 군사력으로 요동

32) 余昊奎, 1998 앞의 논문, 32쪽.

33) 朴京哲, 1989 앞의 논문, 4-5쪽.

34) 황병국, 1987 「조선조의 진법 고찰」 『군사』 15, 63쪽.

35) 北周의 외척 梁堅이 581년 왕권을 빼앗아 隋나라를 건국하였다.

을 침공하였고, 요동을 점유하고 있던 고구려가 이에 적극 대항하자, 중국의 선비족과 고구려 간에 전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³⁶⁾

수나라는 선비족이 세운 北周의 지배를 벗어나 한족에 동화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것을 군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선비족의 고유한 향병을 국가적 부병체제로 편제하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실제로 수나라 전기 문제대(581~604)에는 향병의 수가 우세했지만, 후기 양제대(604~618)에는 부병출신이 더 많았다. 여기서 향병은 선비족의 기병을 지칭하는데, 이는 곧 수나라가 북방유목민족에 기원하고 있음을 뜻한다.³⁷⁾ 따라서 여기에서는 고구려 기병전술과 수나라 驃騎·車騎 중심의 기병전술을 상호 비교하려고 한다.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은 수 문제 때 한 번, 수 양제 때 세 번 모두 네 차례 이루어졌다. 제1차 침공은 598년(영양왕 9) 고구려가 요서 지방을 공격하자, 수 문제가 크게 노하여 漢王 諒과 왕세적을 원수로 삼아 수·육군 30만 명으로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이때 고구려는 부대를 국경 서쪽 전초 기지인 무려라성에 집결시키고, 수나라의 특정한 부대를 공격하고 후퇴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그러나 고구려는 병력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에 무려라성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무려라성에서 철수한 고구려군은 요하 동쪽 연안에 집결하여 침략군의 요하 도하를 막는 전투에 참가하였다. 이때 수나라는 장마, 군량부족, 질병 등으로 전투력이 급속히 떨어져 요하 경계

36) 김한규, 1999 『한중관계사1』, 191쪽; 439년 北魏가 북방 유목민족을 통일한 남북조시대 까지 선비족의 고구려 침공은 없었다. 그러나 534년 북위가 東魏와 西魏로 분열하고, 이어서 北齊와 北周로 대립했는데, 577년 北周가 北齊를 멸망시키면서 고구려 침략이 시작되었다.
37) 북조의 군대는 기병과 보병으로 운용되었으나 주력은 기병이었다. 북위전기의 拓跋部 부락 성원의 군대 또한 모두 기병이었으며, 북위후기는 步騎에 의한 협동작전이 빈번하게 전개되었지만 기병이 전투부대의 주력이었다. 한편 東魏 北齊의 군대도 기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당시 20만 명의 선비병이 운용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기병으로써 이를 주관하는 騎兵省이 별도로 존재하였다. 西魏 北周의 군대 역시 보병과 기병이 주요 병종이었지만 기병의 비중이 더 컸다. 다만 출정할 때는 전술상 보병과 기병이 상호 결합된 방식으로 운용되었다(白奇寅, 1998 앞의 책, 125-127쪽).

선을 넘지 못하고 본국으로 철수하였다.³⁸⁾

제2차 침공은 612년(영양왕 23) 3월부터 시작되었다.³⁹⁾ 당시 수나라 군대는 비전투원을 포함하여 2백만의 대군이었던 반면, 고구려 병력은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고구려군은 자국의 지형과 상황에 맞는 守城戰⁴⁰⁾으로 대응하였다. 다음의 사료에서 두 나라 기병전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요동방면의 별군인 9군이 모두 압록수 서쪽에 모였다(중략). 중간에 이르러 군량이 거의 바닥났다. 이때 영양왕은 대신 을지문덕을 시켜 수나라 진영에 가서 거짓 항복케 하니, 실상은 적의 허실을 정탐해 보려 함이었다(중략). 을지문덕은 우문술의 군사가 굶주린 기색이 있음을 보고, 더욱 그들을 피로케 하려고 싸울 때마다 달아났다. 우문술이 하루 동안에 일곱 번 싸워 모두 이기니, 그는 승리에 자신을 갖게 되고, 또 群議에 쫓겨 동진하여 살수를 건너 평양성에서 30리가 되는 산에 의지하여 진을 쳤다. 을지문덕이 다시 사람을 보내어 거짓으로 항복하며 우문술에게 청하기를, "만일 군사를 돌이키면 왕과 함께 隋主의 行在所에 가서 알현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우문술은 군사가 피곤하여 다시 싸울 수 없음을 보고, 한편으로 평양성이 험하여 함락시키기 어려움을 알고, 결국 거짓 항복에 의해 군대를 철수하였다. 우문술이 方陣을 치면서 행군 하니, 우리 군사가 사방에서 그들을 공격하였다. 우문술은 싸우면서 달아났는데, 7월에 살수에 이르러 군사가 반쯤 강을 건너려 할 때 우리 군사가 뒤에서 후군을 쳤다. 적장 辛世雄이 전사하니, 수나라 군대가 모두 붕괴하여 견잡을 수 없이 무너졌다.⁴¹⁾

38)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앞의 책, 213쪽.
39) 이때 수 양제는 수·육군 총 113만 3천 8백 명의 군사와 군사만큼의 수송부대를 이끌고 평양으로 진격하였다. 하루에 한 군단씩 출발했는데, 군단과 군단 사이가 40리나 되었다. 40일이 되어서야 출발이 마무리되었고, 그 행렬이 80리에 달했다(『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 8, 嬰陽王 23년).
40) 守城戰術은 우세한 수를 믿고 공격하는 적을 막기 위해 먼저 백성들을 城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들판에 먹을 것을 없애는 청야전술과 배합한 전술이다.
41) 『三國史記』 권20, 高句麗本紀 8, 嬰陽王 23년.

위 사료는 수나라 9개 군단이 압록수에 이르자 을지문덕 장군이 적진에 들어가서 적의 내부 실정을 탐지한 다음, 守城戰으로 수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쳤다는 내용이다.

당시 수나라 군대는 비전투원이 많고 군량을 수송하는 후속 부대가 길었기 때문에 속전속결의 단기전을 목표로 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속전속결의 단기전은 기동력을 갖춘 대규모 기병대를 소유해야만 가능했는데, 그것은 제2차 고구려 침공에 동원된 수나라 정예기병의 숫자가 2만 4천여 명이었던 사실은 통해 알 수 있다.

을지문덕이 사용한 수성전은 적을 성 근처까지 유인한 다음에 淸野入保 전술과 開門出擊 전술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여 적을 제압했는데,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성에 무기와 군량 등을 준비한 상태에서 적과 싸워 성을 지키는 것이다. 고구려는 전략 요충지에 여러 성을 쌓았다. 그리고 각 성들은 상호 엄호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즉, 한 성이 공격을 당하면 이웃 성에서 즉시 병력을 지원하고, 적군의 후방이나 측면을 공격하였다.⁴²⁾

당시 수나라 군대는 장거리를 이동함에 따라 피로가 누적되었고, 군량과 장비, 지형과 기후에 취약하였다. 더구나 고구려 영토 대부분이 산악지형이었기 때문에 기병의 역할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고구려는 상황이 불리하면 방어에 치중하였지만 적의 취약점이 보이거나 전황을 반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성 밖에서 기병전투를 전개하였다.⁴³⁾

고구려군의 첫 번째 수성전은 오골성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우중문은 7전7승하는 승리감을 갖고, 험한 천산을 넘어 오골성 동쪽으로 나갔는데, 고구려군이 군수물자 수송을 담당할 輜重부대를 공격하였다.

오골성 전투에서 겨우 대오를 수습한 수나라 군대는 고구려군의 유인

42) 임용한, 앞의 책, 138쪽.

43)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앞의 책, 222쪽.

작전으로 동쪽 薩水(小子河)를 건너 평양성 밖 30리까지 진출하였다.⁴⁴⁾ 그러나 평양성이 난공불락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문술은 곧 군대를 方陣으로 편제하여 철수 길에 올랐다. 그런데 얼마가지 않아 사방에서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며 고구려군이 몰려왔다. 그것은 침략군이 후퇴하기 전에 을지문덕이 유리한 지역과 살수에 군사를 매복했기 때문이다. 이때 기병이 후퇴하는 부대를 추격했는데, 수군이 살수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隊伍가 흐트러진 상태여서 30만 대군이 거의 전멸할 수밖에 없었다.

제3차 침략은 613년(영양왕 24) 4월 수 양제가 군사를 직접 이끌고 요수를 건너 요동을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전일의 실패를 거울 삼아 장수들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각자가 공격토록 하였다. 수군은 여러 무기로 여러 날을 공격했지만, 고구려군은 임기응변으로 이에 맞서 요동성을 지켰다.⁴⁵⁾

이때 귀족 楊玄感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급보가 왔다. 수 양제는 밤에 장수들을 불러 철수를 명했다. 고구려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지만 감히 공격하지 못했다. 그것은 수나라의 속임수로 여겨졌고, 또한 군대가 대군이 었기 때문이다. 수군이 철수한 지 2일이 지나서야 수천의 군사로 추격전을 감행했지만, 이때 역시 8, 90리의 거리를 두고 뒤따를 뿐이었다. 요수 근처에서 이미 양제의 본진이 건너간 것을 알고서야 후진을 공격해서 수만 대군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었다.⁴⁶⁾

44)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앞의 책, 228쪽.

45) 당시 수양제는 포대 백만 개에 흙을 가득 담아 성벽에 독처럼 큰길을 쌓아올렸다. 그 높이는 성에 육박하였고, 넓이는 30미터가 넘었다. 또 바퀴가 여덟 개나 되는 樓車를 성보다 높게 쌓고, 성을 내려다보며, 양쪽에서 공격할 준비를 마쳤다. 고구려군도 그 위세를 보고는 위축될 지경이었다(『東國兵鑑』;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 8, 嬰陽王 24년 4월).

46)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 8, 嬰陽王 24년 4월.

맺음말

이상에서 본고는 고구려와 북방 선비족의 기병전술을 전연·후연 및 수나라전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선비족의 기병전술은 북중국을 장악한 전연·후연과 수나라가 기병을 주력군으로 편제하고, 보·기병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고구려를 침략했지만, 고구려는 “先守後戰”의 守城戰으로 대응하여 중국의 침략을 격퇴했다고 하겠다. 여기서 “先守後戰”은 적군의 사기가 왕성한 초기에는 방어에 치중하다가 적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기병을 앞세워 적극 공격하는 전술을 말한다. 특히 고구려는 전략요충지에 성을 쌓고, 각 성들은 상호 엄호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확립하여 북방 선비족의 침략을 격퇴할 수 있었다. 각 장을 요약하여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고구려의 전연전쟁과 기병전술에 관한 것이다. 전연의 모용황은 서쪽의 宇文鮮卑와 서남쪽의 後趙를 치기 전에 후방의 근심을 제거하려고 322년에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고구려에는 평탄한 북쪽 길과 험하고 좁은 남쪽 길이 있었다. 모용황은 고구려의 주력군 5만 명이 지키는 북쪽 길 대신, 1만 5천 명의 약졸이 지키는 남쪽 길에 주력군을 배치함으로써 환도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다. 당시의 사료가 공격과 방어루트 및 두 길에 배치한 군사의 숫자만을 언급했기 때문에 기병전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후연군이 승리한 데는 다음의 사실과 관련이 있다. 먼저 전연은 기병으로 구성된 강력한 선봉대를 운영하여, 고구려의 지형과 정세를 탐지하였고, 다음으로 남쪽 길이 시작되는 小子河 부근의 木底城을 함락시킨 다음, 주변의 교통망을 장악함으로써 성을 고립시키는 전술을

사용했으며, 마지막으로 동절기에 해당하는 11월에는 목저성 부근의 하천이 모두 결빙했지만, 연나라 기병의 전투력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고구려 후연전쟁과 기병전술에 관한 것이다. 고구려와 후연은 384년(고국양왕 원년) 모용수가 후연을 건국한 이후 네 차례 전쟁을 하였다. 399년(광개토왕 9) 후연왕 모용성의 침략, 401년(광개토왕 11) 광개토왕의 숙군성 공격, 404년(광개토왕 14) 모용희의 요동성 공격, 405년 12월 모용희의 목저성 공격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고구려는 한 차례 패배하고 세 차례 승리하였다. 고구려의 한 차례 패배는 399년 후연왕 모용성이 고구려를 공격하여 신성과 남소성을 함락시킨 것이다. 당시 고구려가 패배한 것은 무순방면 신성의 지형이 車騎와 騎兵이 합동작전을 펼치기에 용이한 개활지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고구려의 세 차례 승리한 것은 광개토왕의 군사력 증진과 전략전술의 계발에 따른 전국토의 요새화에 기인한다. 특히 405년 12월 후연의 모용희가 패배한 것은 전투지역인 목저성의 지형이 평지인데도 車騎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평지에서는 車騎를 쓰고, 산악에서는 騎兵을 쓰며, 좁고 막힌 지형에서는 弩兵을 쓴다는 병서의 기록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셋째, 고구려 隋나라 전쟁과 기병전술에 관한 것이다. 수나라는 문제 때 한 번, 양제 때 세 번 등 모두 네 차례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제1차 침공은 598년(영양왕 9) 고구려가 요서지방을 공격하자, 수 문제가 수·육군 30만 명으로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고구려는 먼저 무려라성에서 저지하고 다음에는 遼河 동쪽연안에 집결하여 수나라 군대의 요하 도하를 저지시켰다. 결국 수나라는 요하를 넘지 못하고, 본국으로 철수하였다. 제2차 침공은 612년(영양왕 23) 양제가 113만 3천 8백 명의 대군을 이끌고 침략한 것인데, 2만 4천여 명의 기병을 앞세워 속전속결의 단기전을 지향하였다. 반면에 소수병력의 고구려는 守城戰으로 맞섰다. 을지문덕의 守城戰은 적

을 성 근처까지 유인하여 淸野入保 전술과 開門出擊 전술을 유기적으로 사용한 전술이다. 첫 번째 수성전은 오골성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고구려가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輜重부대를 공격함으로써 수나라 군대에게 타격을 주었다. 대오를 수습한 수나라 군사는 고구려군의 유인작전으로 평양성 밖 30리까지 진출했지만, 을지문덕의 매복 작전에 걸려 30만 명이 희생되었다. 제3차 침략은 613년(영양왕 24) 수 양제가 군사를 직접 이끌고 요동을 공격했지만, 고구려는 후퇴하는 수나라 군대 수만 명을 요수에서 격파하였다.

주제어 : 고구려 선비족전쟁, 기병전술, 수성전, 과하마, 수의 고구려침공



Koguryo(高句麗)'s War against Seonbijok(鮮卑族)
and its Cavalry Tactics

— Focused on wars against Jeonyeon(前燕), Huyeon(後燕) and Sui(隋)—

Yi, Hong-Du

Jeonyeon(前燕) was the first regime founded by Seonbijok(鮮卑族). From the tactical aspect, it meant that the main force switched from chariots pulled by horses to cavalry riding the horses. Jeonyeon, Huyeon and Sui, which were branches of Seonbijok, organized cavalry as their main force and strengthened cooperation between the infantry and the cavalry, and invaded Koguryo several times. However, Koguryo organized a strong cavalry unit armed with Gwahama(果下馬) and Maekgung(狛弓). It coped with the invasions first through defensive wars of “defend first fight second(先守後戰)” based on mountain fortresses, and when the enemy troops were demoralized attacked them with the cavalry.

Moyonghwang(慕容皝) of Jeonyeon invaded Koguryo in 342. At that time, Koguryo could be reached through the plane northern route(北道) or through the rugged narrow southern route(南道). Moyounghwang deployed his main force in the southern route defended by 15,000 weak soldiers rather than the northern route guarded by 50,000 elite troops, and took Hwando-seong(丸都城). Main factors of the victory of Jeonyeon's army were: first, the spearhead composed of cavalry soldiers spied out the landform and the condition of Koguryo and reported to the main body of the troops; second, they held the initiative of war by isolating and falling Mokjeo-seong(木底城) near Sojaha(小子河) from which Koguryo's southern route began; and third, the mobility of Jeonyeon's cavalry was enhanced as the troops went to war in November when the river froze.

On the other hand, the defeat of Koguryo's army resulted from differences in fighting power between the two countries. That is, Jeonyeon's army introduced cavalry tactics of nomadic tribes as well as chariots of the Han race and, as a result, its destructive power was significantly augmented. Koguryo, however,

relied on its steep topographic condition and did not attached Jeonyeon's army from the side or the rear.

Moyongseong(慕容盛), the king of Huyeon attacked Koguryo in 399 and fell Sin-seong(新城) and Namso-seong(南蘇城). The main reason for the defect of Koguryo's army was that Sin-seong was in an open land where the cavalry and chariot units carried out united operations. However, Koguryo won the victory at three wars in 401, 404 and 405. It was owed to Gwanggaeto(廣開土) the Great's fortification of the whole land through the expansion of armament and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and tactics.

The Sui Dynasty invaded Koguryo four times. Its first invasion was with 300,000 naval and army forces in 598. Koguryo first stopped the enemy in Muryeora-seong and then prevented Sui's army from crossing the Yoha(遼河) River at the east side of river. At last, Sui's forces failed and withdrew to their own country. The second invasion was in 612, mobilizing 2,000,000 soldiers. Outnumbered, the Koguryo army responded through defensive strategies behind the wall. The first confrontation was at Ogol-seong. At that time, Koguryo army attached Sui's military supply units that transported munitions. In addition General Euljimundeok(乙支文德)'s won the battle through an ambush strategy. The third invasion was in 613 led by Emperor Yangje(楊帝) himself, but Koguryo crushed tens of thousands of Sui's soldiers who were retreating in Yosu(遼水).

Key Words : War against Seonbijok, Cavalry Tactics, Gwahama, defend first fight second, General Euljimundeok